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의 공생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LINC사업 수립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지역과 산업발전을 위하여 대학이 해온 역할은 상당했다. 그러나 최근 국내 대학들은 학생 자원 감소로 학령인구 대비 대학진학자 비율은 현저히 높아진 반면, 대학교육의 국제경쟁력은 50위권에 머무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이론중심 · 연구중심 대학교육에서 탈피하여 실무중심 · 실용중심 대학교육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고, 각 대학의 자율적인 노력 및 이와 연계한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으로 훌륭한 인재가 모이는 대학을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이 커지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재정지원 사업 간 유사성 및 중복성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이를 점검하여 재정사업의 통합 및 내실화를 도모해야만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체제 개편, 대학의 산학협력 문화 조기 정착 등을 목표로 2012년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사업의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1년 ① 지역거점 연구단 육성사업(’04년~’11년), ②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 사업(’09년~’11년), ③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09년~’11년) 등 3개 주요 산학협력 지원 사업을 통합 · 개편하여 종합적 산학협력 지원 사업으로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을 수립하였다.

둘째, 동 사업 수립과 동시에 산학협력 중점교수 제도 도입, 대학의 산학협력 실적 및 현황의 정보공시 항목 도입 등 ‘패키지형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하였고, 이러한 개선 사항은 동 사업의 지원대학 선정을 위한 1단계 평가에 반영하여 실시함으로써 산학협력 친화형 제도 개선사항이 대학 사회에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각 대학의 교원 신규 임용 평가 시 산업체 재직 경력의 반영 비율 제고 등을 위하여 마련된 「산업현장 친화형 대학교원 인사 개선방안」('11.4.12)을 동 사업 수립 과정에서 반영함으로써 대학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주도할 대학 교원의 역할을 재정립하였다.

〈표 1〉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개편

'11년도

구 분	사업비	지원규모
광역권 선도산업 인재양성	1,000억원	20개교
산학협력중심대학	310억원	17개교
지역거점연구단	145억원	7개교
계	1,455억원	44개교

'12년도

구 분	사업비	지원규모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1,700억원	51개교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 마련된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은 관련 전문가 회의 및 정책연구, 대학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2년 1월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12년 3월 28일 최종적으로 51개 대학을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으로 선정하였다.

LINC사업 내용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을 통한 재정지원 대학은 5대 광역경제권별로 '기술혁신형' 과 '현장밀착형' 등 2개 유형으로 선정하였다. '기술혁신형' 은 산업체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이전 및 사업화하는 것에 초점을 둔 유형이고, '현장밀착형' 은 지역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에 초점을 맞춘 유형으로 광역경제권(수도권, 충청권, 동남권, 대경강원권, 호남제주권)을 기준으로 일정 수의 대학을 선정하였다.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선정 대학은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 특성화, 현장실습 등 현장중심 교육 내실화, 취 · 창업 교육 강화, 재직자에 대한 선취업 후진학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각 대학이 주요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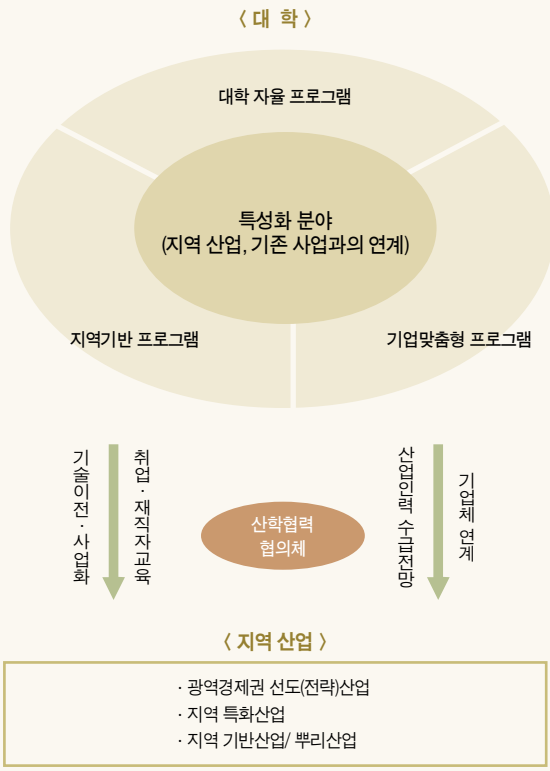
첫째, 각 대학은 자체 역량 및 지역사회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산업과 연계된 '특성화 분야' 를 선정한 후, 선정된 특성화 분야와 관련 있는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대학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대학별 특성화 분야는 이명박 정부의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식경제부 선정)과 연계하되, 각 지역의 특성 및 대학의 중장기 비전 등을 고려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둘째, 각 대학은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으로 '현장실습지원센터' 를 설치하여 현장중심의 실무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해야 하고, 대학 구성원 및 사회전반에서 창업에 대한 관심이 제고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창업교육센터' 를 설치하여 장기적으로 준비된 창업가를 육성하는 능동적인 '창업교육 체제' 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각 대학은 고졸취업자의 선취업 후진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학과 개설 등의 하드웨어적 노력과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 주말반 · 야간반 확대, 산학협력 학 · 석사 통합과정(5년제) 운영 등 소프트웨어적 노력을 동시에 기울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로 평가를 통하여 '후진학 선도대학' 을 지정(51개 대학 중 10개 대학 선정)하고 대학별로 2억 원의 재정을 지원하였다.

넷째, 각 대학이 연계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

〈그림 1〉 대학과 지역산업 간 연계 강화 방안



〈표2〉 이명박 정부의 2단계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권역	미래성장동력 산업	대표 주력산업
충청권	· 의약바이오산업 · 차세대 에너지	· New IT 산업 · 융합기계부품
호남권	· 신재생에너지산업 · 라이프케어	· 광융복합 · 친환경 수송기계
대경권	· 그린에너지 · IT 융복	· 스마트기기 부품 · 첨단융합소재
동남권	· 에너지 플랜트 · 그린화학 소재	· 수송기계산업 · 조선해양
강원권	· 기능성신소재	· 바이오메디칼 · 헬스케어
제주권	· 풍력서비스	· 차세대식품융합 · MICE

역시 강화해야 한다. 연구년을 활용한 교수의 기업 파견 근무, 교수 · 학생 · 기업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 수행 등을 통해 대학은 기업이 애로를 가지고 있는 영역에 관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경영 · 마케팅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며 기업에서 원하는 맞춤형 인재양성을 추진하는 것이다.

사업평가와 의미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추진 이후 지금까지 다양한 대학 구성원들과 직접 소통해 본 결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정부가 대학의 어려운 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모멘텀을 제시한 데 대해 고무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각 대학들이 직면하게 될 미래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의 고통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대학 스스로 변화하기 위한 노력과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정부도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대학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내대학이 그동안 축적해 놓은 역량과 자율의 기반 위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이 촉매제가 되길 바라며, LINC 대학들이 산학협력 및 국가발전의 중추가 될 시대를 기대한다.

박설민
교육과학기술부 지역대학과 사무관
edupsm@mest.go.kr